

전기 팔수록 손해...한전, 1분기 5조원대 영업손실

12일 실적 공개...전기요금 kWh당 13.1원 인상에도 적자 탈피 못해 가스공사 미수금도 11조원대로 증가 예상...LNG 가격 인상 불가피

원가보다 싼 전력 공급의 장기화로 적자가 벌어지고 있는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에만 5조원대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보인다.

9일 연합인포맥스 집계에 따르면 한전의 1분기 영업손실에 관한 2개월 이내 증권사 전망치(컨센서스)는 5조4870억원이다. 한전의 1분기 실적은 오는 12일께 공개될 예정이다.

한전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5조8000억원,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앞서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인상되면서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은 작년 4분기(10조7670억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큰 수준이다.

이처럼 큰 규모의 영업손실이 이어지는 것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이 전기를 파는 구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서 작년 한전의 kWh당 전기 구입 단가는 155.5원이

였지만, 판매 단가는 이보다 30원 이상 낮은 120.51원이었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은 역대 분기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원가와 판매 가격 역전 현상은 계속됐다. 지난 1~2월 전기 구입 단가와 판매 단가는 kWh당 각각 165.6원, 149.7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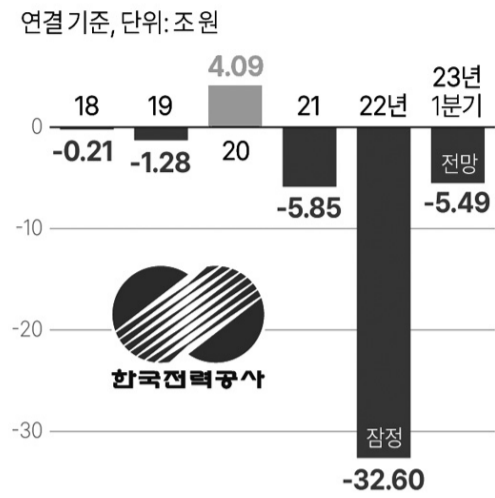
증권사들은 원가가 반영된 요금 인상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한전이 8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0원 미만'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상이 단행되면 한전의 연간 손실은 증권가의 전망치보다 다소 축소될 수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 등에 미칠 영향, 여론 악화 등을 우려해 3월 말까지 내렸어야 할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미룬 상태다.

하지만 회사채 시장 왜곡, 전력망 투자 위축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주요 자산 매각, 간부

한전 영업이익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연합인포맥스

임금 인상분 반납, 조직 축소 등 국민이 납득할 자구 노력을 전제로 더는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결정이 늦어질수록 결국 국민이 지불해야 할 한전의 이자 부담이 커지

는 등 국민경제에 좋지 않은 면이 있다"며 "인상 수준 등을 놓고 논의가 유동적이지만 이번 주에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이 kWh당 7원 오르면 한전이 올 하반기에 2조원가량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폭 인상으로는 한전이 과도한 부채 축소 등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힘겨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작년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192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원 늘었다. 부채비율도 459.1%에 달했다.

현재 한전은 회사채(한전채) 발행으로 버티고 있다. 한전의 4월 기준 누적 회사채 발행 규모는 77조1530억원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 등 한전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대로라면 1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이미 오른 것을 빼고도 올해 안에 38.5원을 더 올려야 한다.

하지만 이미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한 달 이상 미뤄진 상황에서 3분기와 4분기에 잇따라 전기요

금을 올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5월에 단행될 2분기 인상이 사실상 올해 마지막 전기요금 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도 일각에서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월에 올리고 (3분기 요금을) 한 달 뒤인 6월 말에 또 인상하는 것은 당과 정부에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하반기 한전의 재무상황과 국제 유가 흐름 등 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도 오는 11월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도시가스용 미수금은 11조원대로 증가했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난방비 폭탄' 사태로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들어 동결됐다. 정부는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가스비도 함께 올려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2년 말 8조6000억원을 기록한 도시가스용 미수금은 11조6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누적된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는 도시가스용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인상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농어촌공사 'K-농공기술 수출확대 추진단' 발대식

농업 SOC·스마트팜 등 구성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8일 공사가 보유한 농공 기술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K-농공기술 수출확대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K-농공기술 수출확대 추진단'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공사가 보유한 농공 기술 역량을 집중해 공사의 해외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등 협력체계 구축으로 농공기술 수출 확대를 위해 조직됐다.

추진단은 ▲농업 SOC ▲스마트팜 ▲토양오염 복원 ▲행정지원 등 4개 반으로 구성·운영하며, 학계 및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위촉으로 전문성을 높였다.

또 분기별 CEO 주재 점검 회의, 월별 상임이사 주관 회의 등으로 실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병호 사장은 "추진단 운영을 통해 공사가 보유한 농업 기술력을 활용한 해외사업 확대로 K농업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민간기업과의 동반성장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공사는 1967년 해외기술협력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국제농업협력사업(ODA)을 시행하

는 등 축적된 농공기술과 시설물 유지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사업 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아울러 2009년부터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2300억원을 투입해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T, 캄보디아에 한국의 맛 알린다

동남아시아게임 연계 홍보·판촉 17일까지 막걸리·음료 시음 행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한국 식품의 캄보디아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2023년 캄보디아 동남아시아게임'과 연계한 'K-푸드 홍보·판촉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동남아 11개국이 참가하는 2023년 캄보디아 동남아시아게임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며, 공사는 지난 5일 개막식장인 프놈펜 모로독 테코 주경기

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국산 막걸리와 소주, 음료 시음 행사를 진행했다.

또 프놈펜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이온몰, 마크로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K-푸드 판촉전을 동시에 추진해 한국문화와 식음료에 관심이 많은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권오열 수출식품부장은 "국제 스포츠 행사를 계기로 캄보디아 시장이 활기를 띠고 K-푸드 소비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신규 유망시장으로 K-푸드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시장개척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사학연금, 국민소통 플랫폼 '국민참여홍보단' 모집

15일까지 접수...5개월 간 활동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오는 15일까지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형의 '사학연금 국민참여홍보단 On세상·On라인(이하 국민참여홍보단)'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3가지 채널별 자격요건에 따라 각 6명, 총 18명을 선발한다. 지원방법은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mjson@tp.or.kr)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학연금 홈페이지(www.tp.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SNS채널 활동에 관심이 있는 홍보 인플루언서로 구성된 국민참여홍보단은 사학연금 홍보 전반에 대한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국민 소통에 자원역할까지 수행하며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참여홍보단원은 접수된 지원서의 서류심

사를 통해 최종선발되며 이들을 대상으로 대전에 위치한 TP 교육센터에서 홍보활동에 관한 교육 OT·위촉장 수여 등을 포함한 발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5개월 동안 활동하는 국민참여홍보단은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 대국민 홍보, 사학연금제도 안내, 기관 소식 공유, 홍보관련 제언 및 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매월 소정의 활동비와 함께 활동 종료 후 우수활동 단원을 선정해 시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